

의 정 정 보

2006 - 8 9. 22

▣ 최근 개정 법령 1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7

■ 최근 개정 법령

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① 개정이유

-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고,
- 2006년도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을 인하하며
- 8. 31 부산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 설정(법 제188조의 제3항)

-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 인하 조정

- 현행 재산세 부담의 상한인 직전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인하하여 조정함

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

-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5퍼센트 경감하고,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던 것을 개인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각 50퍼센트 경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③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8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하고,
- 기념일 행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날을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하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861호, 2005. 6. 13. 공포, 2005. 7. 28. 시행)에 따라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고,
-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인한 업무 이관 에 따라 성년의 날의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며,
-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71호, 2005. 12. 29. 공포·시행) 에 따라 국경일로 된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② 시행일 : 공포한 날(2006. 9. 6) 부터 시행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때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을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② 시행일 : 공포한 날(2006. 9. 6) 부터 시행

④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①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790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민등록 대리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비

- 지방행정혁신 차원에서 시행된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산처리에 맞게 정비함.

나.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는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는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이후 원장 처리 방법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방법

- 전입신고 등 각종 신고를 세대주의 위임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임은 호적전산조직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세대주 위임의 진실성을 담보하면서 주민등록신고에 있어 주민편의를 최대한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보관 관련 규정 삭제

- 종전에는 영내군인의 경우 탈영예방 및 분실방지 등을 위하여 부대장이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영내군인들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부대장의 영내군인 주민등록증의 통합 보관 규정을 삭제하여 영내 군인들이 주민등록증을 개별 보관하도록 함

- 영내 군인들이 주민등록증을 개별 보관함으로써 영내 군인들의 편의증진과 개인정보 보호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규정 정비

-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를 규정하고, 열람이나 교부 신청시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7인 이내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③ 시행일 : 2006. 9. 25 부터 시행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① 개정이유

-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운동시설 운영업이 추가되는 내용 등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670호, 2006. 9. 4. 공포·시행)됨에 따라
- 그 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

- 운동시설 운영업이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를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함

나. 구조조정으로 산업용지 처분 시 양도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신청인의 기준 명확화

- 입주기업체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을 할 경우 양도대상자를 처분신청인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양도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처분 신청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산업용지의 양도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업을 「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규정함

다.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의 규정방법 변경 (제39조의3 제2항)

- 현재는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특성 및 조성목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분할기준을 정함으로써 최소분할면적이 적절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의 최소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이상으로 하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특성 및 조성목적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③ **시행일** : 2006년9월4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39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 록> : 행복한 책 읽기



❶ 도서명 :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❶ 저자명 : 로렌 와이스버거

❶ 출판사 : 문학동네

❶ 출판년 : 2006년

❶ 페이지 : 2책

실제에 거의 근접한 순도 99%의 발칙한 이야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100% 허구가 아니다. 지금 세계 패션계의 중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안나 윈투어의 어시스턴트로 일했던 로렌 와이스버거는 자신의 실제 경험에 신랄하고 유쾌한 유머를 더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완성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많은 화제를 모으며 수많은 여성을 열광시킬 수 있었던 것도 소설 속 이야기가 패션 잡지계의 현실을 리얼하게 묘사했기 때문이고, 거기에 소설 속 악마 같은 상사 미란다 프리스틀리의 모델이 미국 <보그> 편집장 안나 윈투어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밝혀지면서 이 소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해폭탄 윈터' 그녀는 누구인가?

<뉴스위크>로부터 '프리마돈나의 품위'를 지니고 있고, '끝내주는 구두'를 신고 있으며, '철의 여인처럼 엄격한 태도'를 갖추었다는 평을

들은 안나 윈투어. 그녀는 ‘런던-밀라노-파리-뉴욕’이었던 패션쇼 스케줄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뉴욕-런던-밀라노-파리’로 바꿀 수 있고, 언제나 세계적 디자이너가 보내준 의상을 입고 빅쇼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쇼를 관람하며, 쇼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를 뜨는 것으로 유명한 패션계의 막강한 권력자이다.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등 세계 4대 컬렉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안나 윈투어가 도착해야 쇼가 시작되고, 쇼가 끝나고 그녀가 박수를 치면 그 쇼는 성공을 보장받은 거나 다름없고, 그녀가 무대 뒤로 디자이너를 찾아가기라도 하면 패션계와 매스컴은 아예 난리가 날 정도라고 한다.

매일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테니스를 치고, 아침 일곱시에 회사에 출근하며, 어떤 파티에도 십 분 이상 머물지 않는 철저한 자기관리로도 유명하다. 전 세계 패션 피플의 숭배와 찬양을 받는 안나 윈투어의 실제 모습과 소설 속 등장인물인 미란다 프리스틀리를 비교해보는 것도 책을 읽는 또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영국 출신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십 대에 곧장 패션계로 뛰어든 이래 출세가도를 달린 점 등 미란다 프리스틀리의 이력은 안나 윈투어의 실제 이력과 흡사하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 또한 수많은 호사가의 입을 거치며 떠돌던 안나 윈투어의 ‘유별난 에피소드’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당뇨병 예방시대가 열릴 것인가.

지구촌 당뇨병 유병률은 5.1%. 하지만 먹거리가 풍부한 선진국에선 10%, 우리나라도 8~10%에 이른다. 지난 9월 14~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42차 유럽 당뇨병 학회"에선 전세계적인 "해일"로 표현되는 당뇨대란을 막기 위해선 당뇨 전 단계부터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은 '다음 물을 많이 마심)다뇨 다식 ".하지만 이때는 이미 당뇨병이 시작된 지 10년쯤 지난 후다. 이렇게 당뇨병을 늦게 발견하면 치료 시기가 늦고, 결국 온갖 치료를 병행해도 병의 진행을 멈추기가 쉽지 않다.

미국 워싱턴대 스티븐 칸 교수는 " 당뇨병은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체중 관리와 약물 투여 등으로 합병증 발병 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진행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예측할 수는 없을까. 당뇨병 정상 기준은 100mg/dl 이하. 그리고 공복 상태 혈당이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그렇다면 혈당치 100~125mg/dl 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때가 바로 발병 직전인 공복 혈당장애(IGT)다.

따라서 이때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 영국 옥스퍼드대 루리 홀만 교수는 "비만.가족력.고혈압.고 콜레스테롤(특히 중성지방)수치, 임신중 당뇨병에 걸렸던 여성 등은 발병 가능성이 크므로 매년 혈당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공복혈당 100~125면 '앳' 조삼 (Ⅱ)

가장 강조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과 소식. 평생 이 방법만 실천해도 60%는 예방된다. 문제는 수십 년간 몸에 익은 생활습관을 바꾸기 힘들다는 것. 이땐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통해 혈당을 낮춰야 한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버나드 진만 교수팀은 21개 국가, 5269명(여성 59.2%, 남성 40.8%)을 대상으로 3년간 로지글리타존(GSK 개발)을 투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그 결과 혈당을 공복 시엔 10mg/dl, 식후 2시간 뒤엔 20mg/dl 낮춤으로써 당뇨 발병을 60%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인은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 당뇨병에 취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 백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8% 정도. 그러나 식습관이 미국화된 한국인.일본인.중국인 2세의 당뇨병 유병률은 18~20%나 됐다.

학회에 참석한 강남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는 '동양인이 백인이나 흑인보다 근육량과 인슐린 분비 세포(췌장의 β세포)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인은 30세 이후부터 정기적인 혈당검사로 공복혈당 장애를 발견하고, 소식.운동.약물치료를 통해 당뇨병을 적극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